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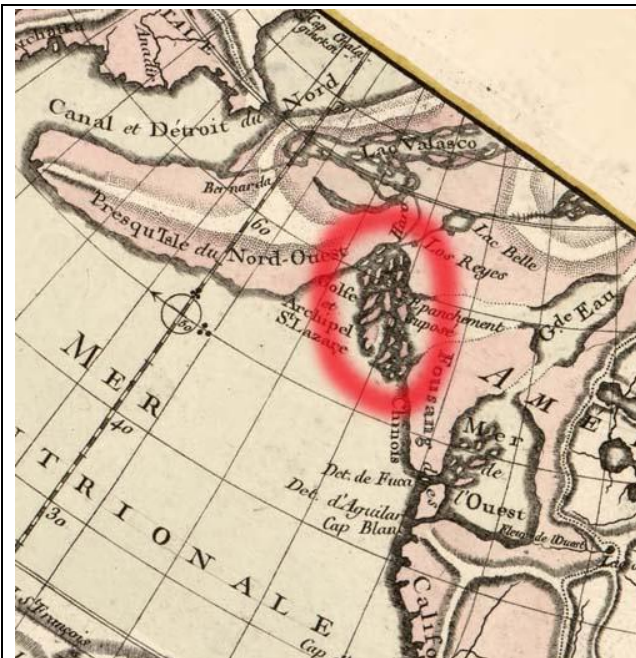
3-3. 해수면상승 후의 변화들

1. 알래스카만은 육지였다.



바닷속에 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강의 흔적들로 보아 매우 넓은 지역이 육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선명한 흔적은 해수면상승이 오래 전이 아닌 것을 예기합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뱀처럼 휘어진 강줄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을 18세기 고지도들로 찾아보면 북미의 지형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며 알래스카만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육지였던 지역이 해수면상승으로 침수되어 수많은 섬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태평양에서 내륙으로 내해가 생긴 것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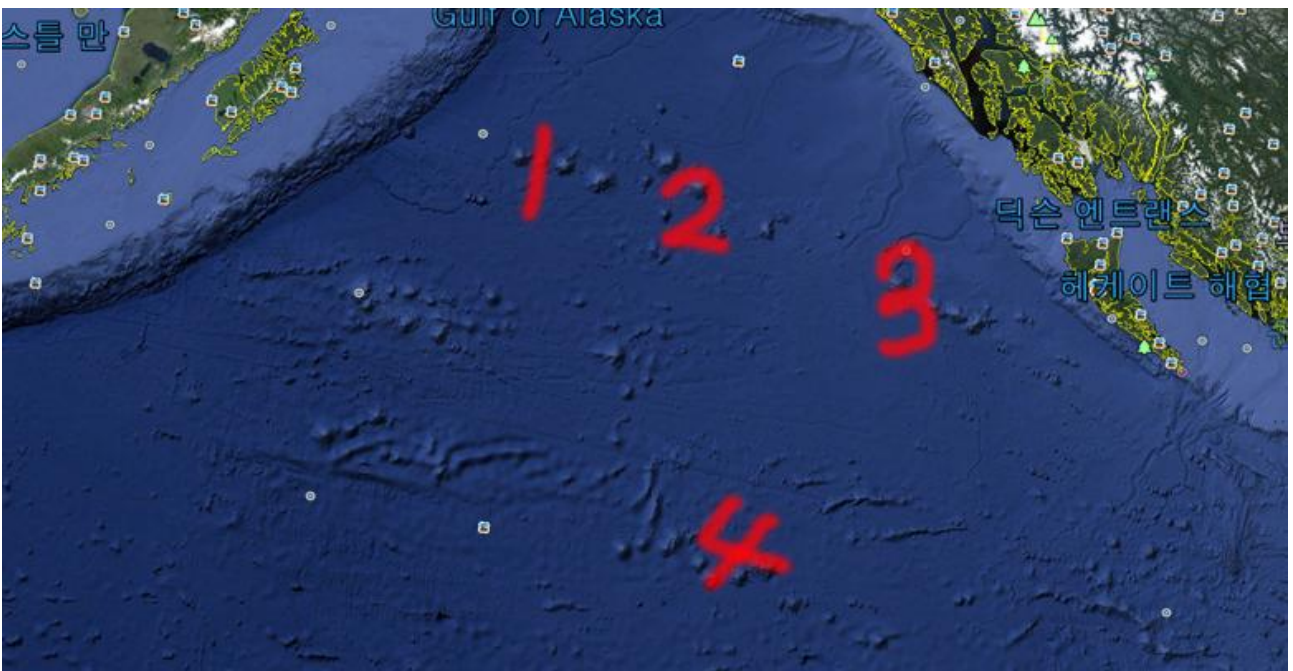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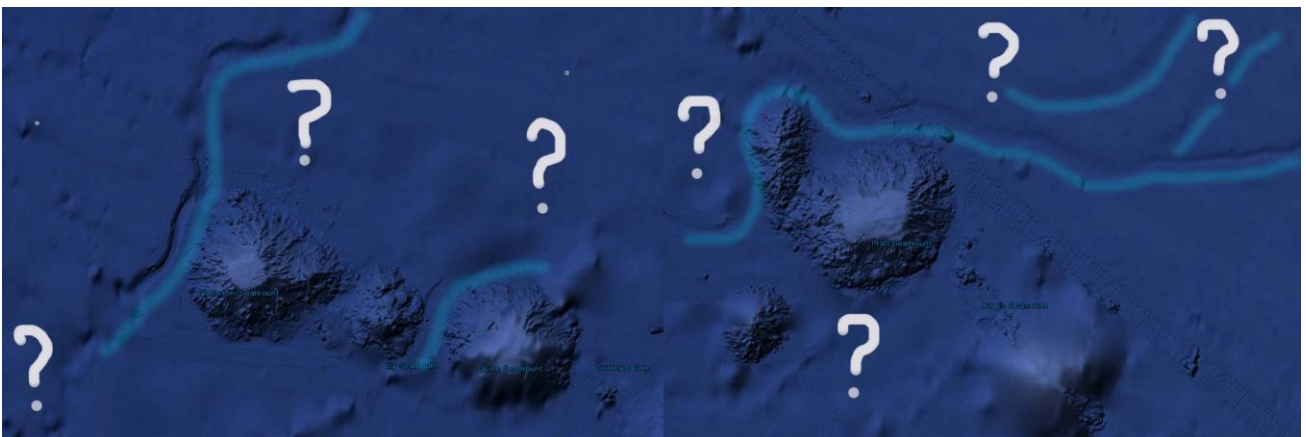
1780 J.A. Dezauche <https://www.raremaps>

지금은 해수면이 상승하여 볼 수 없지만 알래스카만 속을 보면 매우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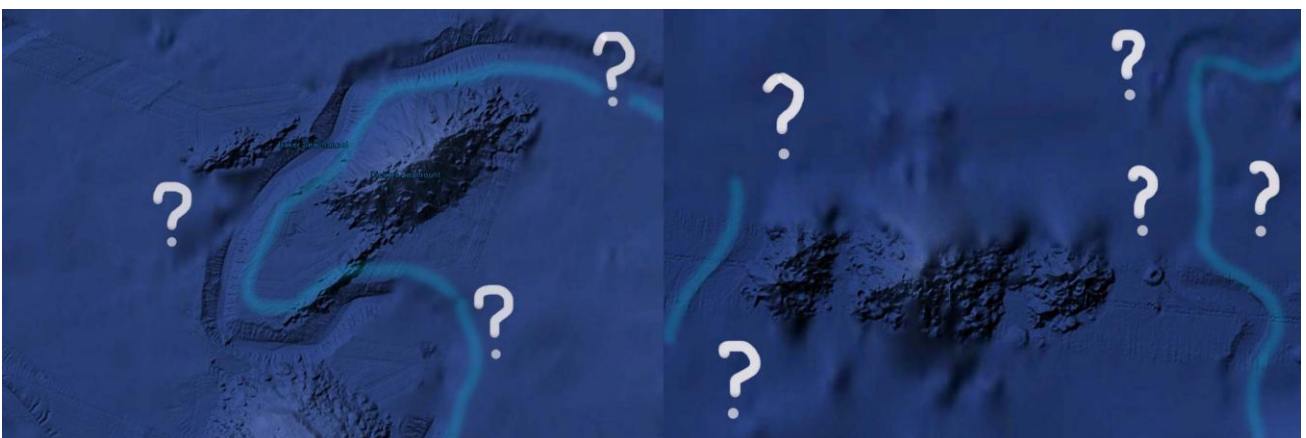
2. 알래스카만의 강줄기들



알래스카만에는 해저에 많은 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육지인 듯 그 옆으로 많은 강줄기들이 보입니다. ?는 볼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한 지역



해수면이 낮았을 18세기에는 매우 많은 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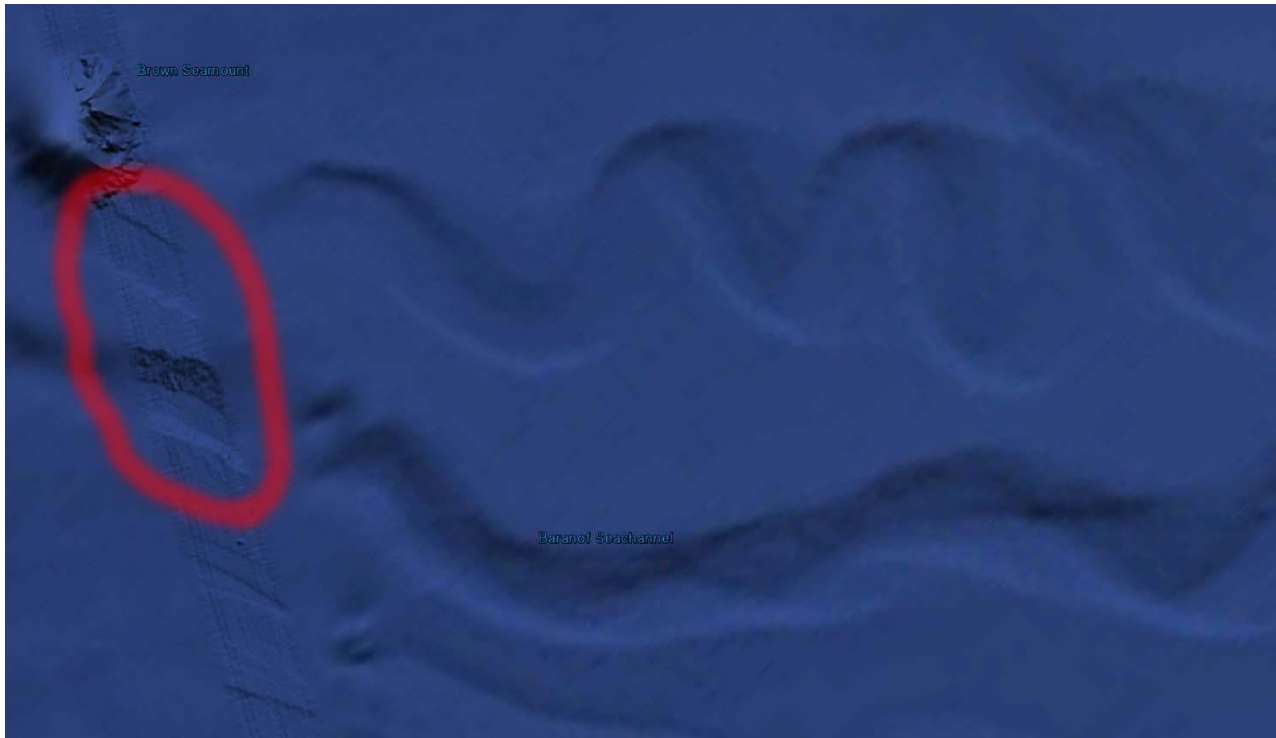
바닷속엔 비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은 이러한 뱀이 기어간 듯한 자국을 만들지 않으며 해저에 바닷물이 산을 휘돌아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강이 흐르던 육지가 바다에 잠겼을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3. 해저의 지각균열인가 강줄기의 흔적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은 해저에서 지각에 균열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들 바보인줄 아는지 거짓을 진실인 듯이 주장합니다.



보통 해저지각균열이 일어난 곳을 보면 계곡이 생기는 것처럼 매우 깊은 흔적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보면 마치 뱀이 기어간 듯한 흔적이며 볼 수 없도록 흐리게 막아놓은 중간에 깨끗한 부분을 보면 매우 얇은 강줄기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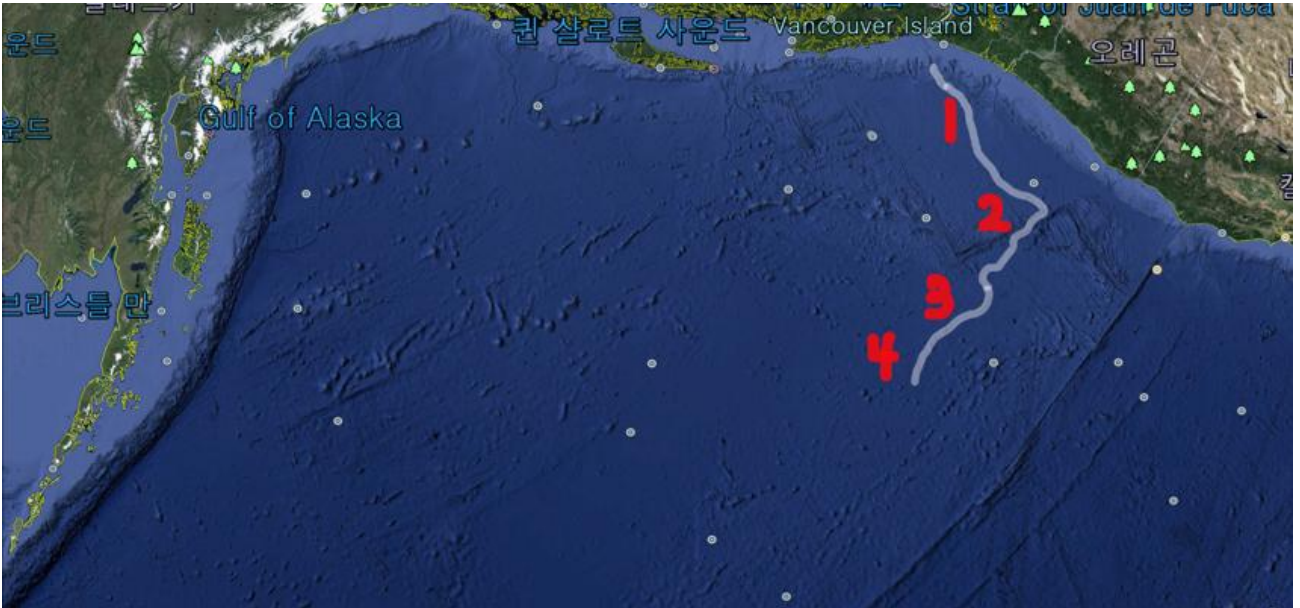
해저의 지각이 균열되어 생긴 흔적은 깊이가 깊으며 이렇듯 깊이가 얇은 뱀이 기어간 듯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행하천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행하천 \[meandering river, 蛇行河川\]](#) 토목용어사전

사행현상으로 인하여 유로가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구부러져 흐르는 하천.

4. 오레곤 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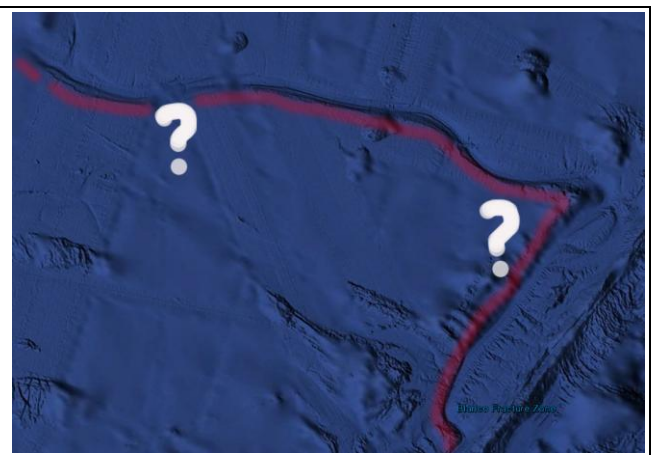
오레곤 앞바다를 보면 길다란 강줄기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을 볼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볼것을 걱정해서일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강줄기들은 육지의 흔적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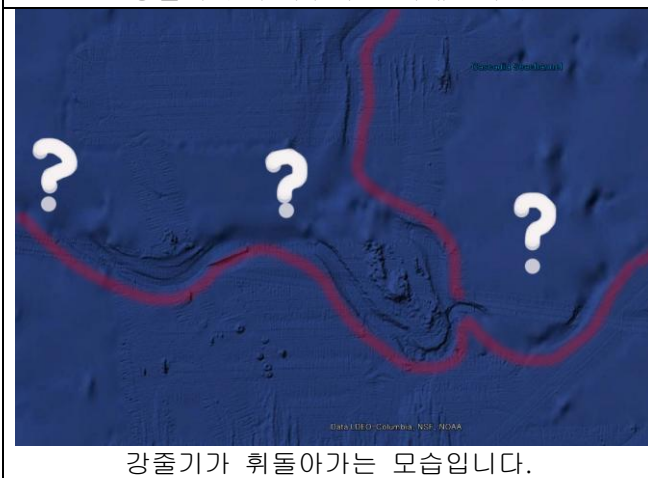
번호대로 보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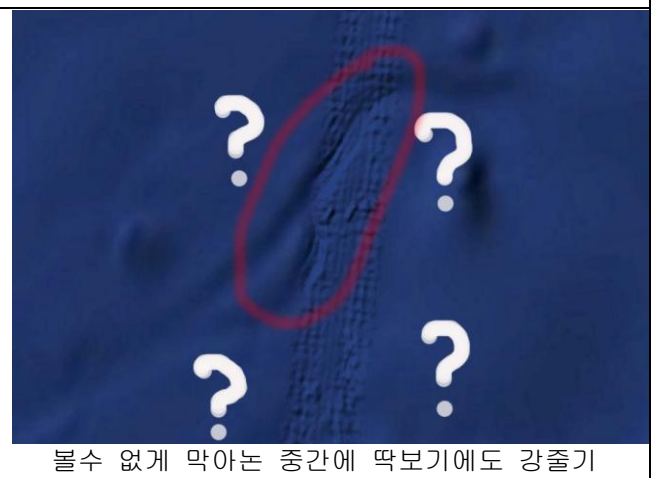
강줄기가 구비구비 흘러내립니다



?은 구글이 이미지를 뿌옇게 처리한 곳들



강줄기가 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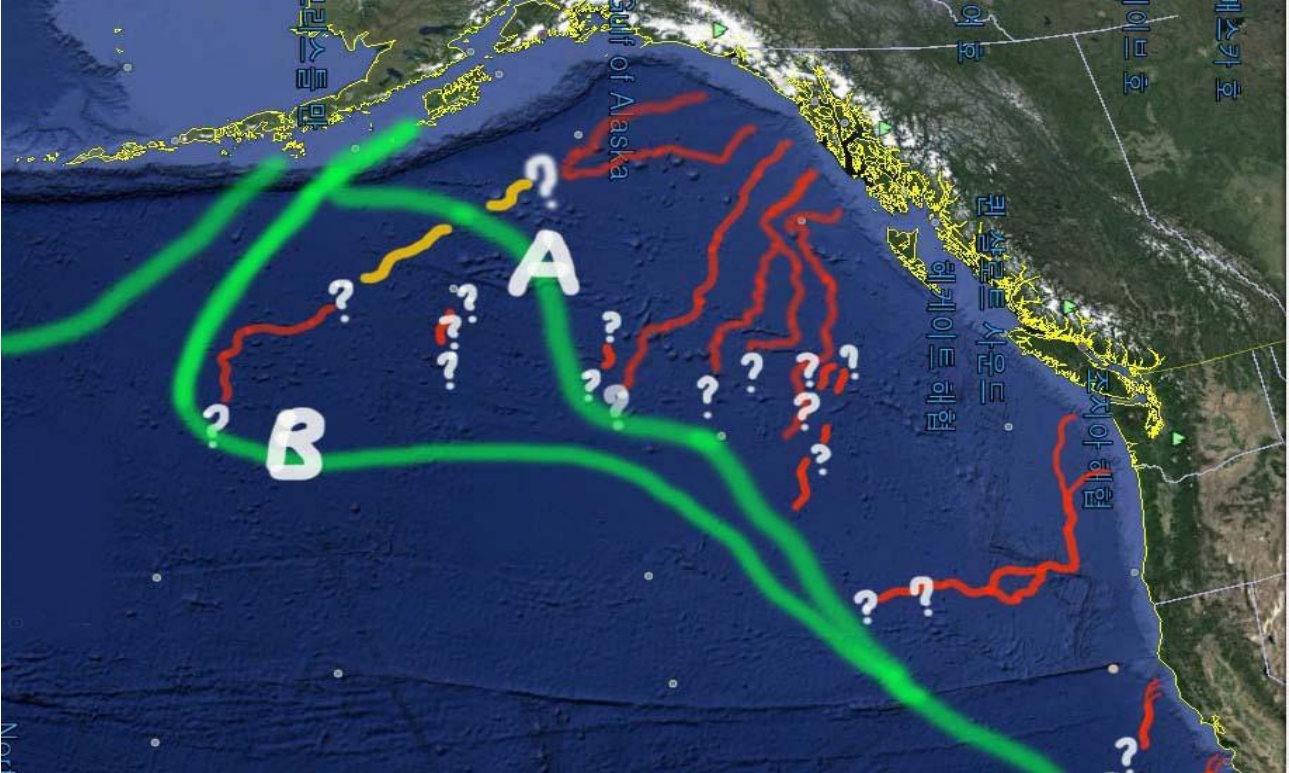


볼수 없게 막아논 중간에 딱보기에도 강줄기

구글어스로 보다보면 뿌연 안개처럼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닷속도 뿌연 안개로 처리한 지역입니다. 무엇이 그리 숨길게 많아서인지 온통 손을 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알래스카만의 강줄기들은 육지의 흔적이다.

알래스카만에 하천의 흔적을 구글어스로 일일이 찾아서 실 위치에 표시해보면 A는 현재도 확인이 되는 하천들의 흔적이 있는 곳까지의 라인, B는 지워진 곳에서 찾은 하천의 흔적이 있는 범위를 포함한 라인



이러한 많은 강줄기를 대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분명 북태평양지역은 16세기이후 서해의 수심을 넘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서해 최대수심은 103m로 그보다 훨씬 큰 150m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태평양은 베링해협을 통해 막대한 양의 북극해가 내려오므로 150m보다 더 큰폭의 상승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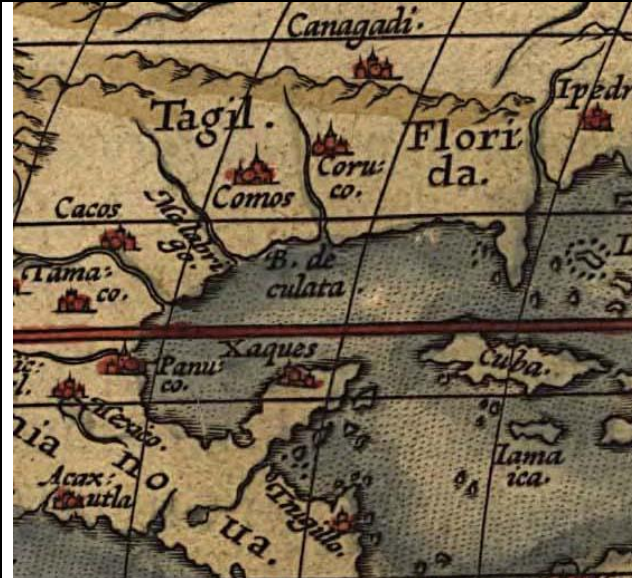
고지도들과 현재의 강줄기를 결합하여 그려보면 아래와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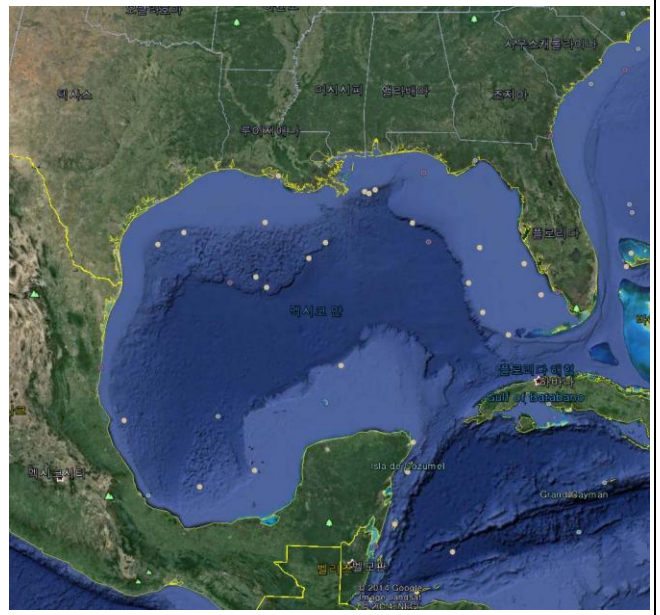
정말 어마어마한 육지가 바다에 잠겼으며 태평양에 잠긴 육지에 살던 사람들은 대륙침몰의 기억을 품고 북미내륙으로 이주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인들이 바다에 잠긴 메시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 잠긴 Messigo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멕시코만과 플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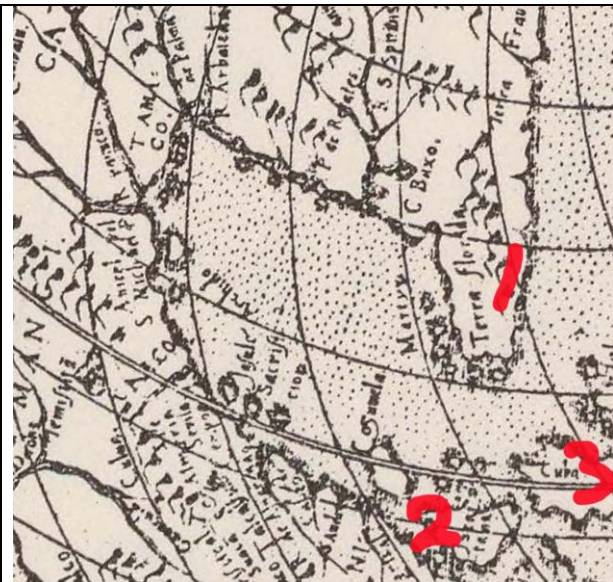
전세계에 유통되는 고지도중 16세기 고지도의 기준이라는 Ortelius지도들의 플로리다를 보면 보통 피나우스지도들에 Tarra를 붙이는 것에 반해서 그냥 플로리다라고 표시하며 실제보다도 매우 작게 그렸으며 멕시코만 주위로 지명들도 몇 개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대륙발견으로 시작되는 아메리카의 역사에 맞게 만든 지도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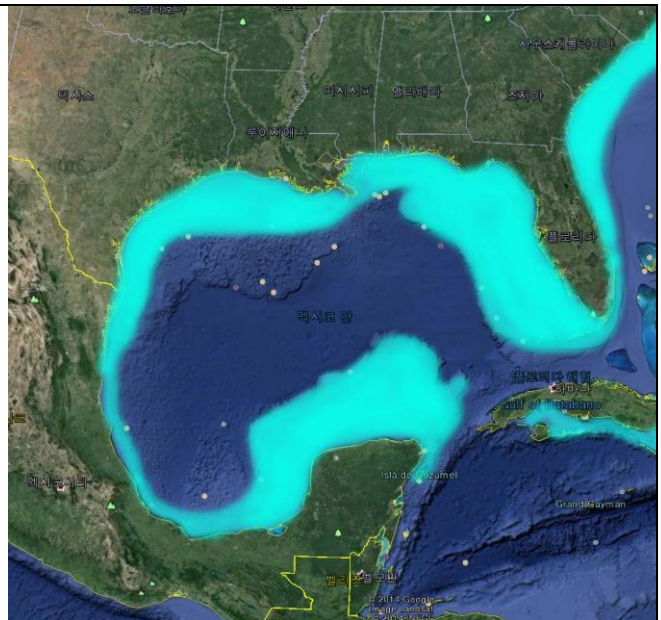
1570 Ortelius <http://www.loc.gov>



(위)Ortelius와 다르게 (아래)Orontius의 지도들을 보면 멕시코만 해안선은 낮은 수심의 근해를 육지로 그렸을 때와 더 비슷하며 해수면 상승전의 해안선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1566 Finaeus, Orontius <http://www.dav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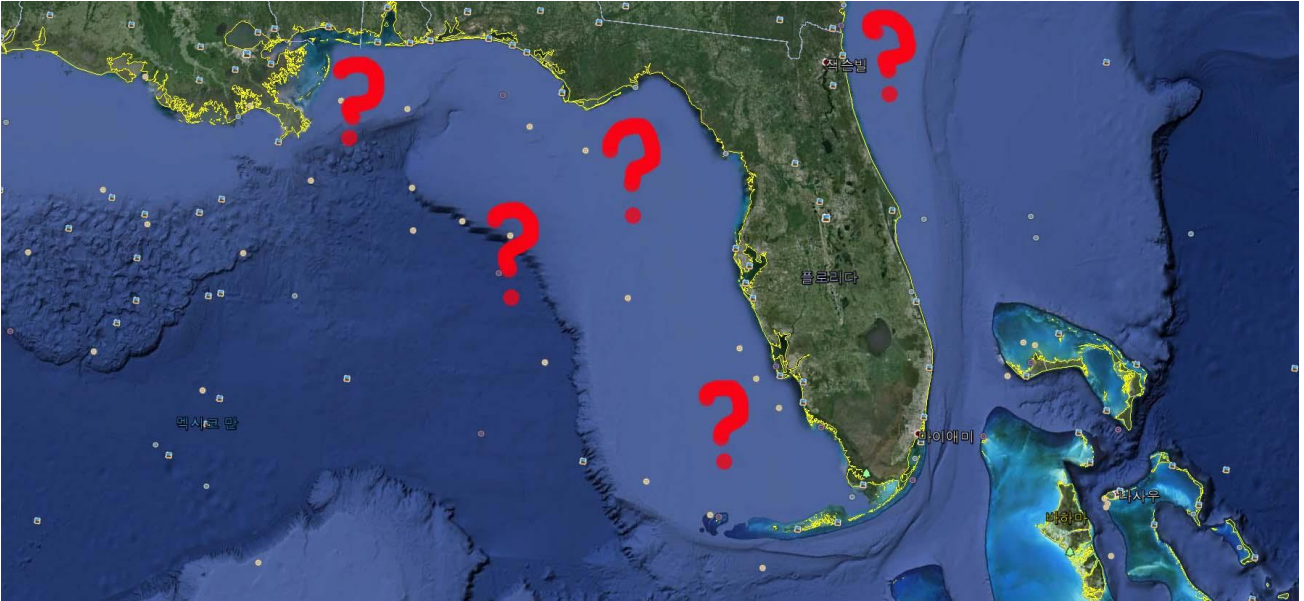


1-Tarra florida, 2-Pucatan, 3-Cuba로 멕시코만에 플로리다는 현재보다 많이 크게 그렸으며 유카탄은 섬으로 그렸고 쿠바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나우스 지도들을 보면 멕시코만 주위로 현재도 익숙한 지명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안에 지명들은 맞아도 내륙은 지리정보가 부족해서 상상으로 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나우스지도들에 멕시코만은 지명들이 매우 밀집되어 표시됐으며 여러 지명들은 현대와도 동일한 지명들이며 지명들을 보면 북미에 멕시코만주위로 동국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플로리다의 바닷속은 볼수 없다.

고지도상에 플로리다서쪽은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해당지역을 구글어스로 보면



수심이 30m미만의 해안까지도 볼수 없도록 막혀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해저의 지형을 알수 없도록 지워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근해는 아래처럼 투명하게 지형이 보이는데 정상일 것입니다.



오크락코닉 만 앞은 수심이 낮아서 흰히 다 보이는 데도 (?)를 볼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플로리다해안은 대부분 수심이 매우 낮지만 모두 이렇게 볼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만도 자세히 볼수 없지만 플로리다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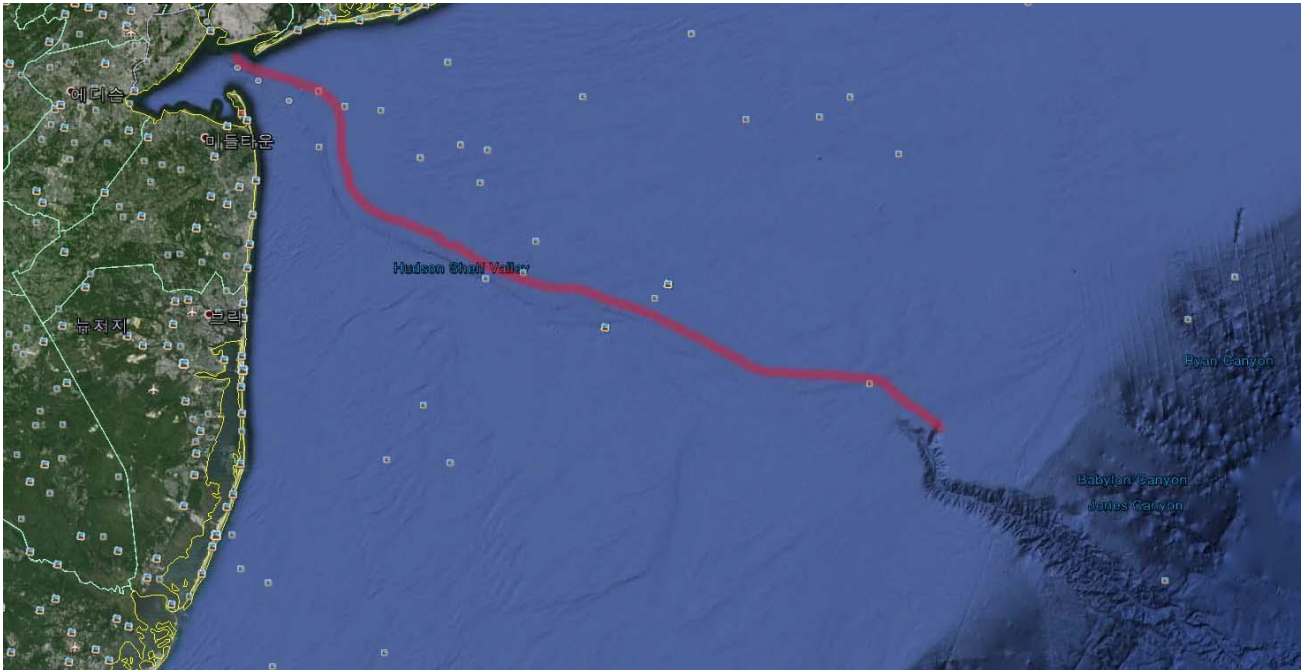


완전히 볼수 없도록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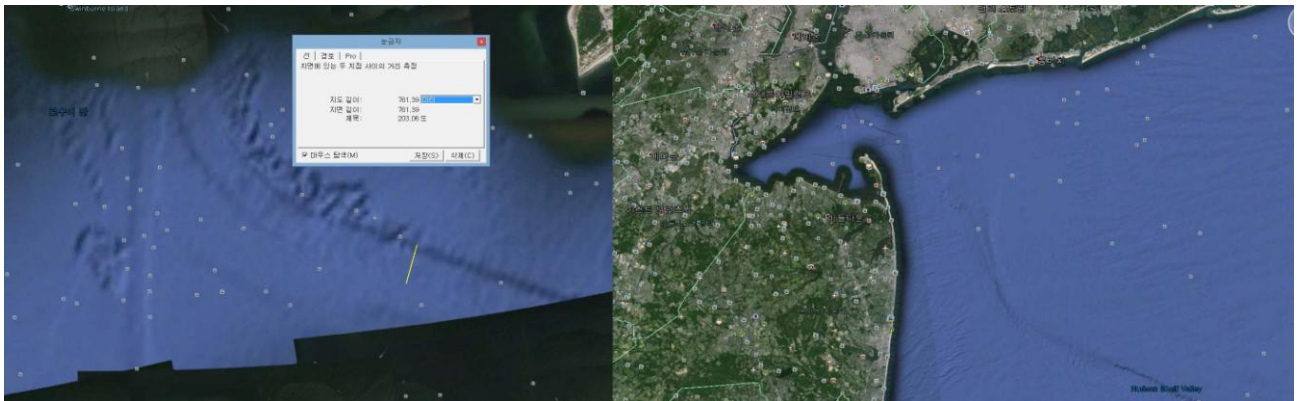
플로리다 근처는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위성으로 보면 해저의 지형을 자세히 알수 있을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군사기지처럼 볼수 없게 뿌연 안개처럼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해안에 수많은 강줄기들의 흔적이 남아 있기에 전체를 지워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9. 뉴욕 앞 로우어만의 강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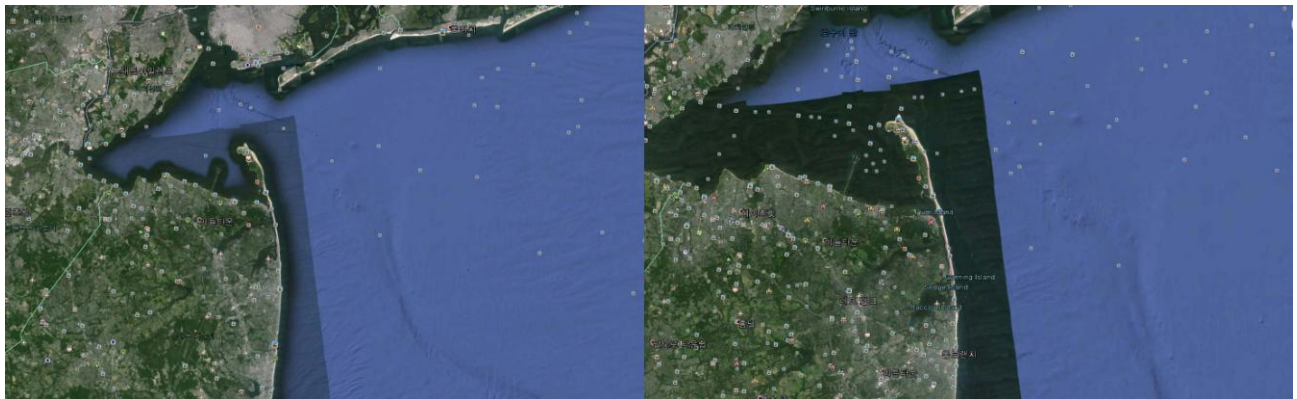
뉴욕 앞 로우어만에서 대서양으로 강줄기의 흔적이 보입니다.



멀리에서는 바다로 가는 강줄기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확대하면 자세히 볼수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폭이 700M가 넘는 강이 흐른 것으로 보이며 멀리서 볼 때는 검은 처리가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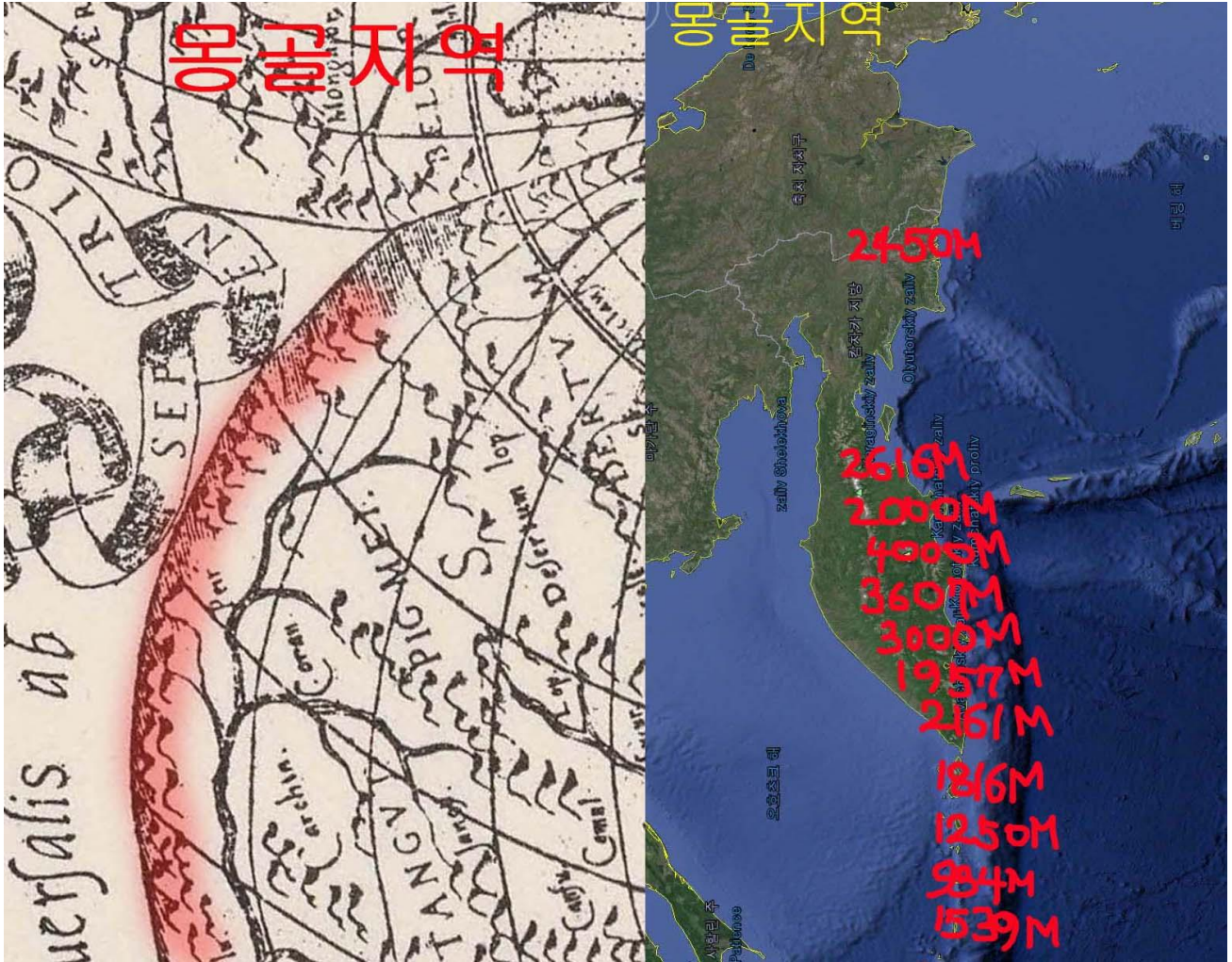


조금만 자세히 보려고 해도 검은 선이 나타나 볼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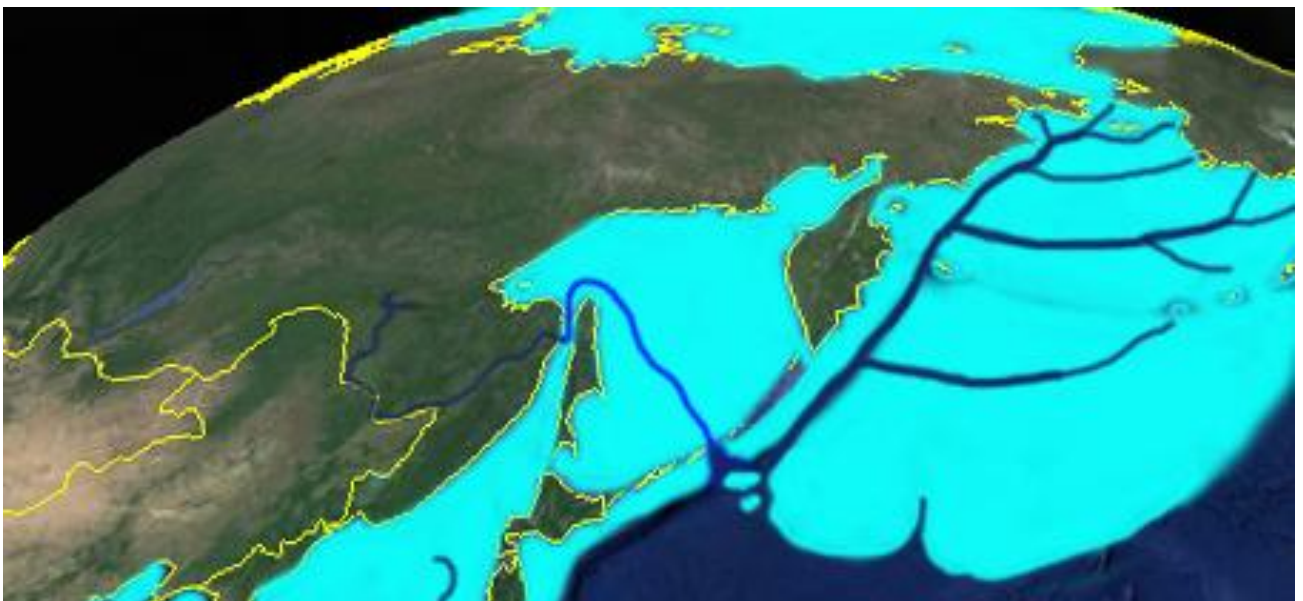
북미동부의 해안선을 보면 이러한 강줄기의 흔적들을 여러곳 볼수 있었으며 모두다 낮은 수심의 근해를 색을 칠해서 볼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것은 바닷속에 지형을 알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목적은 해수면상승의 진실을 지구인들이 전혀 알수 없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흔적들은 글을 보시는님께서 구글어스로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10. 16세기 오호츠크해는 육지였다.

1566 Finaeus,Orontius를 보면 커다란 산맥이 북쪽 원안에 몽골지역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도 해당지역에는 커대한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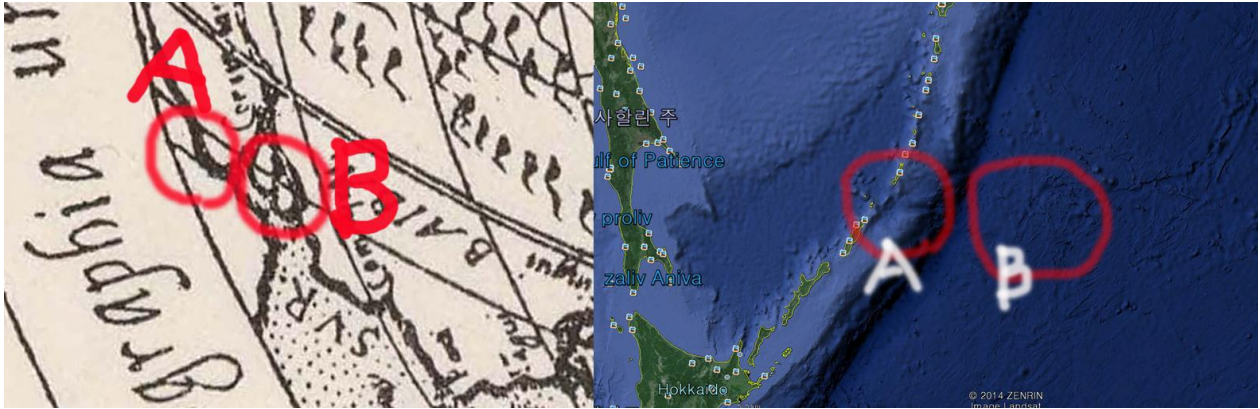
특이하게도 바닷가에 높은 산들이 남북으로 곧게 산맥을 형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고지도들을 현지형에 그려서 보면 오호츠크해는 육지였고 높은 산맥이 태평양을 막아주고 있었으며 러시아 아무르주에서부터 해란강이 태평양으로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11. Gama섬은 사라졌다.

강의 하류를 고지도들로 보면 A지역은 강줄기가 흐르던 자리이고 B지역은 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A지역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침식된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1000M가 넘는 산 사이로 강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도상에 B지역을 보면 분명하게 커다란 섬들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531 Finaeus, Oront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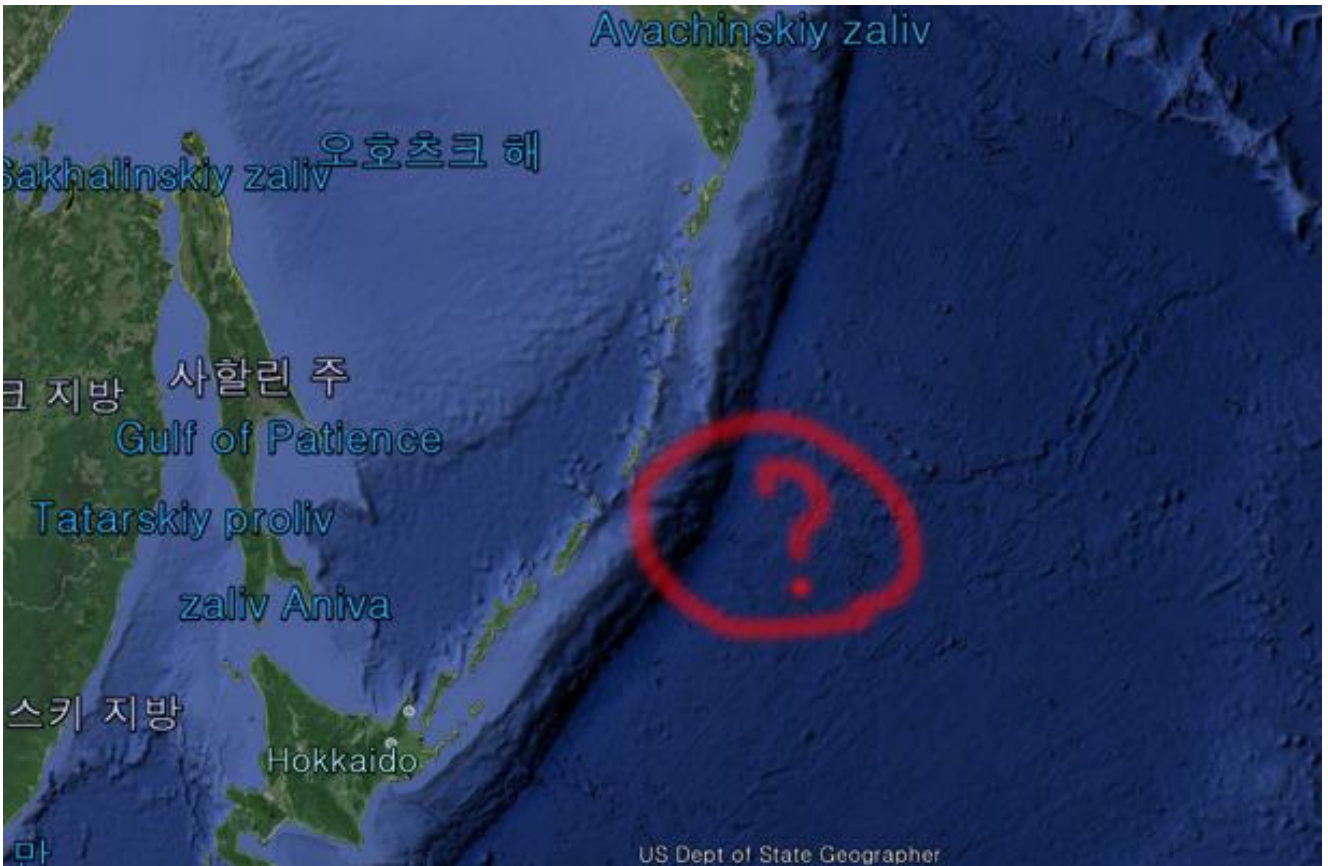


1566 Finaeus, Orontius

Terre de Gama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Gama섬...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Terre de Gama 라고 표시된 섬은 남한의 1/3 정도의 커다란 섬이었는데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18세기 세계지도들의 대부분은 Gama섬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했으며 일부의 고지도만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섬이 작아서가 아니라 세계지도들을 조작하면서 이미 없어진 육지와 섬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면 증거인멸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Gama섬은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섬일 것입니다. 위치가 대요수의 하류에 있으며 요서에서 요동을 오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Gama라는 이름의 섬은 어떤 섬일지... 울릉도? 독도?

12. 16세기 동해는 육지였다.

동해 열도 JAPAN 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중간 폭이 4KM가 넘는 거대한 강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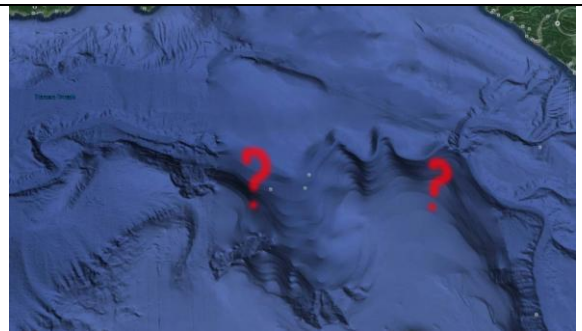


일본중서부 도야마현에서 시작된 강줄기들이 만나서 북쪽으로 흐르는 커다란 강줄기를 형성했던 것이 보이며 아래 도야마현에서 시작한 강줄기들이 바닷속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해저의 지각균열의 흔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의 사진을 보고서 설명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강줄기가 바닷속으로 연결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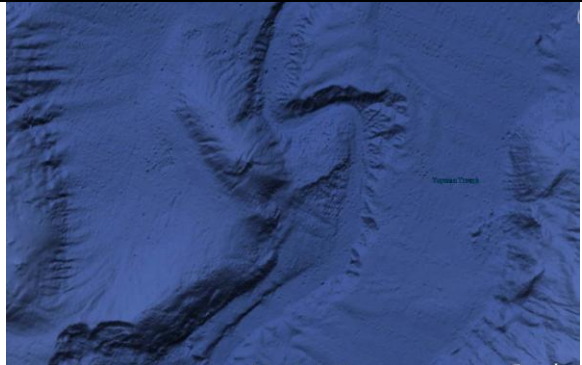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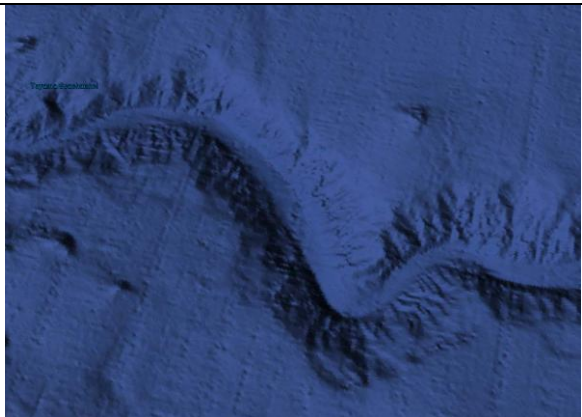
중간폭 4KM이상에 직선거리 500KM가 넘는 거대한 강이 북쪽으로 구비구비 흘러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표시는 볼 수 없게 처리한 지역



강줄기가 산을 휘돌아 흐르고



깊지 않은 전형적인 사행하천의 흔적



?표시가 있는 지역은 흐리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볼 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16세기 지도들대로 현재의 동해바다는 16세기엔 바다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4KM가 넘는 거대한 강줄기가 하류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과거 건조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지도들대로라면 동해는 생긴지 400년도 되지 않는 바다인 것으로 상전벽해(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7세기 중반부터 요수해협으로 인한 요동반도의 침식으로 전 지구적인 해수면상승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육지가 섬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알래스카만은 16세기에 육지였고 17세기말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었으며 알래스카만 아래에 있는 강줄기들은 육지의 흔적이다.

멕시코만과 플로리다의 수심이 낮은 지역을 육지로 표시하면 16세기 Orontius지도들과 비슷한 해안선이 나오며 이는 해수면상승으로 멕시코만의 저지대들이 바다에 잠겨서이다. 플로리다서쪽의 바다는 수심이 낮은 지역도 해저의 지형을 볼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해저의 강줄기들을 가리기 위한 것일 것이다.

16세기 오호츠크해는 육지였으며 17세기 이후 해수면상승으로 바다가 되었을 것이며 요수의 하류지역에는 1780년대 까지도 한반도 1/3크기의 Gama라는 섬이 있었지만 해수면상승으로 사라졌다.

동해는 16세기에 육지였으며 일본중서부 도야마현에서 북쪽으로 강폭 4km가 넘는 커다란 강이 흘렀으며 동해중심부는 과거 건조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동해는 구한말KOREA의 동해가 아니요 대조선COREA의 동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동해는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하나는 명태가 많이 잡히는 동해요 하나는 섬이 수천개가 있는 동해입니다. 명태가 잡히는 동해는 korea의 동해인 오호츠크해이고 수천개의 섬이 있는 동해는 북미 COREA의 카리브해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동해는 이름만 동해인 가짜입니다. 주기적으로 있어왔던 독도(다케시마)분쟁조차 세계사조작을 위한 세뇌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고지도들을 보면 korea와 COREA의 차이를 명백하게 알수 있으며 이는 고지도라는 물증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지구인들이 세계사조작과 근대에 있었던 해수면상승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글들을 올립니다.

부디 부족한 글들 속에서 진실이 담긴 고지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4편으로 이어집니다.